아프리카 경제전망 2023

주요 사항

아프리카의 기후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의견 및 개진된 논거는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이사회 또는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공식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자료 및 지도는 특정 영토의 상태 또는 주권 상태, 국경 및 경계선의 한계, 특정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2023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출처이자 저작권 소유자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이 출간물의 발췌본을 본인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원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어판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어 원문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아프리카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긴축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효과,[1] 세계 전반에 걸친 저속 성장, 지속적인 기후 위협 등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COVID-19으로 인해 쇠약해진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다양한 충격은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2년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2021년 4.8%보다 낮은 3.8%로 추정되었다. 아프리카의 2022년 GDP 성장률은 전세계 평균인 3.4%보다 높은 수준이며 2개국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프리카 경제는 또한 심각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회복력을 나타냈으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를 입증한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전망에 따라 2023년 4%의 반등폭과 함께 2024년에는 4.3%로 그 추세가 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18개 아프리카 국가의 2023년 성장률이 5%를 넘어서고 2024년에는 22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의 호전이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회복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 정책의 효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데 따른 중국의 재개방 정책과 금리 하향 조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장 반등세를 예상할 때는 기본적인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석유 수출국의 성장률은 원유 가격의 도움을 받게 되며 유가는 최근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원 집약형 경제가 아닌 국가는 보다 다양한 경제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충격을 버텨내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2022년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강한 인플레 압박을 가져왔다.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했고 18개 국가에서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각국 정부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공공 예산에 대한 압박도 증가했다. 이처럼 어려운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회복력과 경제력을 갖춘 아프리카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 15억 달러 예산 규모의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처 및 긴급 지원 기구(African Food Crisis Response and Emergency Facility)는 지역 식량 생산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전체의 식량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어 신중한 낙관론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경제 긴축과 미국 달러 가치의 평가 절상은 채무 상환 비용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재정 상태가 매우 제약적인 국가의 경우 부채 부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 가나에서 개최된 2022년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연차 총회에서 합의된 문구. 알제리, 중국, 이집트,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의하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제안.

장기화는 전세계 국가의 위험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전반에 걸쳐 식량 불안정 상황과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생명과 생계 및 경제 활동을 계속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3 아프리카경제전망(AEO)은 아프리카의 기후 행동과 녹색 성장 야망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민간 분야의 잠재적 역할과 아프리카의 방대한 미개발 자연 자본의 보완적 자금원으로서의 이점을 알아본다. 이 두 잠재적 자금원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의 공공 재정 상황과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30년까지 각국이 최근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명시된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이행하는 데는 2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8천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UN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달성을 위해 연간 필요한 비용으로 추정한 1조 3천억 달러를 더하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는 명확해진다. 이 보고서는 분야 간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기후 및 녹색 성장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장애물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수단과 정책 및 규제 수단을 논의함으로써 민간 자금 조달에 대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엄청난 천연 자원 규모(2018년 기준 6조 2천억 달러 추정)를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기후 행동 및 녹색 전환 자금 조달에 있어 자연 자본의 보완적 역할을 논의하고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 관리 개선과 채굴 자원의 국내 사용 및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 제조와 같은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아프리카가 전세계 녹색 개발의 차세대 허브가 되기 위한 중요 광물 자원 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최초의 개발 금융 기관으로서, 아프리카의 기후 조치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와 천연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 회원국(RMC)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기후 협조 금융을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일례로, 기후 안전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젝트가 파리 협정 목표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했다. 지난 해, 아프리카개발은행은 ADF-16에 따라 4억 29백만 달러 규모의 기후 행동 자금 조달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37개 저소득 취약 국가의 기후 적응에 필요한 최대 13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천연 자원 관리 및 투자 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법률 지원 기구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프리카 정부의 역량 육성에 힘써 왔다. 또한 효과적인 계약 협상과 재생 및 재생 불가능 천연 자원의 투명한 관리 향상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RMC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할 수는 없다. 이 보고서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는 기후 행동과 녹색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의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지역의 선별, 가공,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을 비롯한 여러 개발 금융 기관(DFI) 또한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 경제적 과제 증가로 인한 새로운 현실에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MDB는 개발 및 국제 금융 개방의 주역으로서, 자기자본비율을 신중하게 줄이고 프로젝트 기반 금융에서 전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통해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혁신적인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 성과 달성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즉 아프리카 국가가 실제 기후 변화 위협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한다.

아킨우미 아데시나 박사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총재

주요 사항

1장
아프리카의 경제 실적과 전망

아프리카 경제는 여러 충격 요인 속에서도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24년 평균 성장률은 4.1%의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 예상치 3.8%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프리카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은 2022년 3.8%로 전년도 4.8%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계 평균 3.4%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성장 둔화는 세계 금융 시장 긴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1] 으로 악화된 공급망 붕괴와 그에 따른 성장 억제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잔여 효과와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에 따른 영향 증가 또한 성장을 둔화시켰다. 성장 둔화는 광범위하게 나타나,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31개국이 2022년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2년 아프리카 국가는 타 대륙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경제 회복력 측면에서도 팬데믹 이전 경제 상위 6개국 중 5개국(베냉,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이 2024년 세계 10대 고속 성장 경제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에 대한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2023년에는 성장률이 4%로 반등하고 2024년에는 4.3%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과 부록 표 A1.1 참조). 2023년 예측은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이 발간하는 아프리카 거시경제 실적과 전망(MEO), 2023년 1월호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그러나 중국의 재개방과 금리 조정 속도 둔화로 인해 세계 및 지역 경제 상황이 중기적으로 약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 예측이 2023년 1월 MEO 추정 대비 0.4%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취약한 공급망 문제는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경계해야 한다.

1 가나에서 개최된 2022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연차 총회에서 합의된 문구. 알제리, 중국, 이집트,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의하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제안.

충격에 대한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2023년에는 성장률이 4%로 반등하고 2024년에는 4.3%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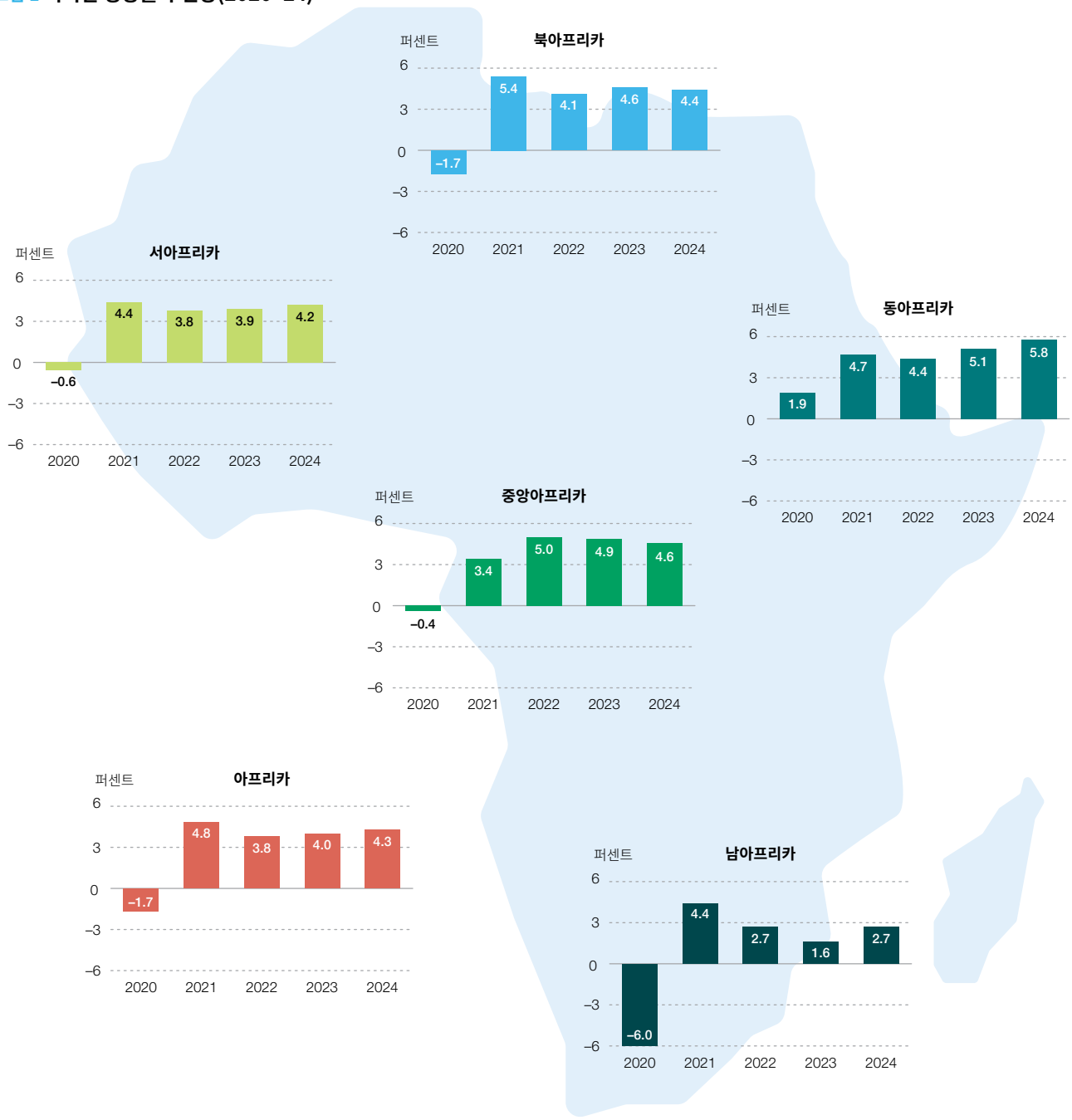
중기 성장 전망은 아프리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 **중앙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은 2022년 5.0% 추정에서 2023년 4.9%, 2024년 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둔화는 2022년 정점을 찍은 원자재 가격의 하향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중앙아프리카의 주력 산업이 원자재 수출인 상황에서 상품 가격 변동은 해당 국가의 상품 수출 의존도와 관련된 위험을 의미한다.
- **동아프리카** 성장률은 2022년 4.4% 추정에서 2023년 5.1%, 2024년 5.8%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수단을 제외한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2023년 증가하는 것과 함께 그 중 7개국의 GDP 성장률이 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요 원인은 생산 구조의 다변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원자재 수입국이므로 가격 하락이 GDP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몇 차례 계속되는 가뭄과 사회 불안정은 예상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북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2년 4.1% 추정에서 2023년 4.6%, 2024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의 성장률 증가는 모로코와 리비아의 활발한 경제 회복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모로코의 경우 대가뭄, 리비아의 경우 불안정한 석유 생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6%로 1.1%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 개입을 통해 2024년에는 2.7%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 예상되는 급격한 감소세는 이 지역 최대 경제 및 거래 파트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속적인 성장 약세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고금리와 계속되는 전력난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2022년 2.0%, 2023년 0.2%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 **서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은 일부 경제 대국이 직면한 거시 경제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2022년 3.8% 추정에서 2023년 3.9%, 2024년 4.2% 증가가 예상된다. 이 낙관적인 전망은 이 지역 소규모 경제의 높은 성장률에서 기인한 것으로, 2023년 5% 이상 성장률이 예상되는 9개 국가 중 8개국이 소규모 경제 국가이며, 15%의 지역 GDP와 22%의 예상 성장률을 차지한다.

성장 전망은 근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가 상이한 경제권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 **관광 산업에 의존적인** 경제의 성장률은 2022년 8.4% 추정에서 2023년 4.9%, 2024년 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북아메리카와 같은 중요 관광 수입원 국가의 경제 침체와 기저 효과 약화가 그 원인이다.
- 원유 가격은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5년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COVID-19 위험 최고조 시기의 경제 침체 이후 **원유 수출국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2022년 4.0% 추정에서 2023년과 2024년 평균 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유 생산 효과 또한 경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다. 원유 생산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노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른 자원 집약적 경제의** 성장률은 2022년 3.0% 추정에서 2023년 2.4%로 감소했다가 2024년 3.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성장률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세계 경제 성장 침체 속에서 특히 광물과 같은 중요 원자재의 가격 하락과 다양성의 제한으로 분석된다.
- **보다 다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자원 집약도가 높지 않은 국가의 경우 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022년 4.4% 추정에서 2023년 5.0%, 2024년 5.6%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COVID-19의 여파에서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예상되는 높은 성장률은 외부 충격의 여파를 약화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 다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림 1 지역별 성장률과 전망(2020–24)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통계.

지속적인 세계 경제 긴축 상황은 아프리카의 국가 통화에 압박을 가했다. 아프리카 원자재 수출국의 화폐는 2022년 그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주된 이유는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었다. 이 긴축 정책은 미국 달러 부양이 그 목적이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거시 경제 관점에서 내수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2022년 미국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한 통화는 짐바브웨 달러, 가나 세디, 시에라레온의 레온으로, 각

각 약 323.4%, 42.5%, 34.0%가 하락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치가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 화폐도 있었다. 바로 앙골라(27.1%), 세이셸(15.6%), 잠비아(15.3%)이다. 2023년과 2024년 환율 절하 추세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아프리카 통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화 약세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경제권에서 안전 자산을 모색하는 투자 동향에 따른 잠재적인 자본 유출을 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4.2% 추정에서 2023년 15.1%로 증가했다가 2024년 9.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평균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4.2% 추정에서 2023년 15.1%로 증가했다가 2024년 9.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은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공급 제한,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성(나이지리아와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도 해당),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통과(exchange rate passthrough) 효과로 대표되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생계비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아프리카 전지역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공급망 붕괴에 따른 지체 효과, 팬데믹 여파 속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로 촉발된 수요 과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효과 또한 기여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4년 간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 2024년 한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의 복귀를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수혜와 내수 식량 공급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물을 해결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최소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국가의 수는 2022년 18개국에서 2023년 16개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물가 관리에 보다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9%로, 그렇지 않은 국가의 절반 수준이며(23.1%) 이 추세는 2024년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7.9%로 1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1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는 2023–24년 국가별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세부 전망을 보여준다.

2022년 재정 운영 실적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팬데믹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재정 적자는 2021년 GDP 4.9%에서 2022년 4%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재정 적자는 또한 2023 MEO에서 보고된 4.4% GDP의 조기 추정 대비 0.4%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팬데믹의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2020년 GDP가 6.8%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년 연속 재정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은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의 평균 재정 적자가 2023년 4.1%로 안정화되고, 2024년에는 3.8%(2019년 팬데믹 이전 4%보다 낮은)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수출국의 경상 수지 개선은 다른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시키기에 부족했다. 원유 수출국들은 2022년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도 1.1% 적자에서 1.4% GDP로 경상 수지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원이 없는 국가와 다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상 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원유 수출로 얻은 수익을 무력화시켰다. 자원 의존도가 낮은 경제의 적자 규모는 2021년 5.4% 추정 GDP에서 7.6%로 증가했으며 다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는 2.8% GDP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0.5% 흑자와 비교되는 수치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의 적자 규모가 2021년 21.5%에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경상 수지 적자는 14.4% GDP에서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이는 다른 자원 경제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평균 경상 수지 적자는 2021년 1.7% GDP에서 2022년 2.1%로 증가했다.

국제 수지 균형과 수출 수익 증가 추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시정 조치가 경상 수지를 뒷받침하면서 2023–24년 예상 적자 규모가 약 2.3%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 3.8%에서 1.5% 이상 개선된 수치이다. 국제 수지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시

그림 2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전망(2023–24년 평균)

	GDP 성장	인플레이션	경상 수지 균형	재정 수지 균형
알제리	2.7	7.2	2.7	–4.8
앙골라	3.7	11.4	4.1	–0.1
베냉	6.1	2.5	–3.9	–4.3
보츠와나	3.9	7.0	3.4	1.5
부르키나파소	3.8	4.9	–3.0	–5.6
부룬디	4.6	9.7	–9.2	–4.2
카보베르데	6.0	7.1	–6.2	–4.0
카메룬	4.3	4.6	–3.0	–0.7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4	6.2	–11.4	–4.0
차드	3.7	3.3	–2.8	5.7
코모로	3.7	2.6	–4.7	–2.7
콩고민주 공화국	7.6	9.9	–4.0	–2.4
콩고	4.3	2.9	6.2	6.0
코트디부아르	7.1	3.2	–6.0	–4.7
지부티	5.9	3.0	22.2	–2.1
이집트	4.8	14.0	–3.0	–5.4
적도기니	–3.9	3.1	–8.6	–3.2
에리트레아	2.9	5.6	10.5	–1.6
에스와티니	4.2	5.3	0.9	–4.1
에티오피아	6.0	24.1	–3.7	–2.8
가봉	2.8	3.3	–2.0	1.4
감비아	5.4	10.4	–11.2	–2.2
가나	2.4	32.5	–2.7	–9.0
기니	5.6	10.6	–5.6	–2.7
기니비사우	4.9	4.3	–4.4	–4.4
케냐	5.8	7.3	–5.1	–5.8
레소토	2.3	6.0	–5.5	–5.3

	GDP 성장	인플레이션	경상 수지 균형	재정 수지 균형
라이베리아	4.5	7.4	–16.4	–4.0
리비아	13.0	4.6	23.7	20.5
마다가스카르	4.6	8.9	–5.5	–3.3
말라위	2.7	19.1	–12.0	–7.8
말리	5.2	2.5	–6.7	–4.4
모리타니	5.1	8.5	–9.8	–1.7
모리셔스	4.6	6.3	–6.4	–5.1
모로코	3.4	4.5	–4.2	–4.3
모잠비크	6.6	8.2	–25.0	–3.8
나미비아	2.8	5.2	–4.3	–5.2
니제르	9.4	2.5	–14.0	–4.9
나이지리아	3.3	16.6	–0.2	–4.8
르완다	7.8	6.5	–11.0	–7.4
상투메프린시페	1.8	11.5	–15.0	–5.0
세네갈	7.7	3.0	–11.3	–5.2
세이셸	4.7	4.3	–5.1	–1.0
시에라리온	4.0	24.0	–7.7	–2.8
소말리아	3.2	4.1	–14.6	–1.1
남아프리카공화국	0.8	5.2	–2.3	–6.5
남수단	2.1	13.7	6.8	4.9
수단	2.9	79.4	–2.4	–1.4
탄자니아	5.8	4.3	–4.6	–3.5
토고	6.4	3.2	–6.2	–5.9
튀니지	2.3	8.0	–5.9	–5.0
우간다	6.6	6.3	–8.9	–4.2
잠비아	4.1	7.8	–0.5	–7.7
짐바브웨	3.2	84.2	0.6	0.1

참고: 이 히트맵은 선별된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국가별 전망을 보여준다. 녹색은 우수, 노란색은 양호, 붉은색은 취약한 상태를 나타낸다. 실질 GDP 성장률은 6%보다 높으면 녹색, 4–6%는 노란색, 4% 미만은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인플레이션은 5%보다 낮으면 녹색, 5–9.9%는 노란색, 10%보다 높으면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경상 수지 흑자는 녹색, 5% 미만 적자는 노란색, 5%를 넘는 적자는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재정 흑자와 3% 미만 적자는 녹색, 3–5%는 노란색, 5%를 넘는 적자는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출처: AfDB 자체 작성 수치.

정 조치로는 재정 건실화와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과 반대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며 아프리카 국가의 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정책 차원의 조치가 포함된다.

공공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 취약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공공 부채는 일부 국가의 채무 구제 방침에 따라 2021년 68% GDP에서 2022년 6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팬데믹 이전 61% GDP 수준을 계속 웃돌 것이다. 또한 이 부채-GDP 비율이 2023년 66%로 증가한 후 2024년 약 65%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은 식량 및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요구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높은 채무 상환 비용, 환율 절하, 차환 위험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 자본 시장을 쉽게 이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제한적인 수익 유동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현지 통화 부채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부채 규모는 2019년 평균 35% GDP에서 2021년 42%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높은 위험에 처한 국가의 공공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국내 채무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중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써 최소 경제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다.

전망에 대한 주요 부정적 위험

주요 부정 요소:

- 세계 경제 침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아프리카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제 금융 긴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채 상환 비용이 높아져 부채 문제를 겪거나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게 된다.
-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들이 손상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피해를 입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등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의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 중기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아프리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일부 국가의 국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 투자 및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군사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
- 일부 국가의 총선 일정에 따른 정치적 위험이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쳐 과열된 자본 유출을 유발하고 투자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

주요 긍정 요소:

-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 연계 효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아프리카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아프리카와 전세계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개선됨으로써 공격적인 정책 사이클에서 벗어나 경제와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 긴축 통화 정책의 속도 완화로 미국 달러 절상이 중단되면 아프리카 통화에 대한 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려는 기후 변화 국제 연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질적 영향을 줄이고 아프리카 녹색 경제 구현을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가속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

단기 정책: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중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써 최소 경제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다.
- 금융 안정 위험에 대처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자본 및 유동성과 같이 통화 정책 조치를 보완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
- 긴박한 국제 금융 상태와 높은 부채 상환 비용을 고려할 때 채무 위기 방어를 위해 기관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 간의 부채 처리 전략 조율이 필요하다.

중장기 정책:

-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국내 수익 유동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 아프리카 경제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산업 정책 수립으로 반복되는 역풍과 국제 사회 충격에 따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 지역 거래 활성화로 세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아프리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국제 금융 및 부채 구조의 개혁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재구성과 관련된 비용, 시간, 법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채무 증가와 긴축 금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 금융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장
아프리카의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성장과 기후 행동은 아프리카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들 우선 항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초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인구는 거의 두 배, GDP는 4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가 전세계 온실 가스 방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30.9%), 미국(13.5%), 유럽연합(7.5%) 또는 인도(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아프리카는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최근 국제 상황과 관련 위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심각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은 녹색 성장 촉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녹색 성장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먼저, 세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에 속하며 장애물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2023–24년 실질 GDP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를 정책 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몇십년 동안 보다 높고 친환경적인 성장 궤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아프리카는 풍부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2050년 아프리카 인구는 24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의 고령 인구에 비해 현재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인만큼 녹색 성장 기회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선도적인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셋째, 아프리카는 전세계 자연 생물 다양성의 25%,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녹색 전환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 넷째, 아프리카는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은 태양열이다.
-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는 낮은 개발 수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신생 인프라, 인프라 및 프로젝트 재정의 낮은 연체율(5.5% 추정)로 인해 친환경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잠재적 투가 가치가 가장 높다.

앞서 언급한 모든 잠재적 가치와 녹색 전환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녹색 성장을 위한 아프리카의 발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2010년과 2021년 사이, 아프리카는 녹색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높은 성과를 나타낸 반면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만 아프리카에 뒤쳐진 수준이었다. 특히 아프리카는 녹색 무역, 녹색 혁신, 녹색 투자와 같은 친환경 경제 기회를 촉진하는 데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아프리카의 경우 녹색 무역의 지표로 활용되는 총 수출 대비 친환경 상품 수출 비율이 2010–20년 평균 1.5%였다. 이는 전세계 평균 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분야 총 고용에서 녹색 직군의 비율로 측정되는 녹색 고용 분야의 성과도 낮게 나타났다. 2010-2018년 아프리카의 평균 비율은 2.5%로, 전세계 평균 5.5%의 절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발전적 변화와 사회적 포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아직 녹색 성장 측면에서 다른 국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민간 분야의 참여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성장의 빠른 진행을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 문제에 있어 공공 투자만으로는 아프리카의 녹색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자금 규모를 약 1조 3천억 달러로 추산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은 녹색 성장 촉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기후 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8천억 달러(또는 연간 2,345억 달러–2,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공공 자원 규모를 고려할 때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고수익 기회를 고려할 때 기후 행동과 녹색 성장 분야는 민간 투자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에너지 효율 건물, 저탄소 차량, 재생 에너지에 대한 2030년 기후 투자 기회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기후 적응 및 회복력 분야에 1조 8천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전세계에서 7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 자동차(EV) 시장 또한 민간 투자자들에게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는 전기 자동차와 전기 저장 장치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철, 인산염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공급망의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민간 기후 재정 투자 규모는 필요에 부족한 수준이다. 2023년 4월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명시된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이행하는 데는 2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8천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5억 달러-2,500억 달러에 상응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2019-20년 투입된 아프리카의 전체 기후 자금 2,950억 달러 중에서 42억 달러의 민간 자금 규모는 공공 자금(253억 달러)보다 6배 넘게 더 낮은 수준이며 세계 주요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민간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의 민간 기후 재정 격차는 2030년까지 연간 평균 약 2134억 달러(2023년 3조 1천억 달러의 아프리카 추정 GDP의 약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민간 투자는 필요한 기후 재정의 전체 부족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민간 기후 재정이 연간 약 36%씩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기후 행동과 녹색 성장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녹색 성장 정책과 장기 전략(LTS)의 부재는 많은 국가에서 투자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녹색 성장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저지한다. 현재 LTS를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는 7개국뿐이며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규정이 마련된 국가도 18개국뿐이다. 기후 및 녹색 성장 프로젝트 주기의 중요 단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술, 인력 및 제도적 역량의 미비로 인해 타당성 검증 또는 계획 단계를 통과하는 프로젝트는 극소수이다. 또한 기후 행동과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 대상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부재와 높은 공공 부채 규모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민간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시장을 고위험 지역으로 인식하여 자본 비용과 필요 수익률 모두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위험 대상으로 인식된 결과,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국제 자본 시장에서 다분히 주관적으로 투자 등급보다 낮은 신용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민간 투자자, 특히 최근 녹색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투자자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여러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투자 성과에 대한 편향적이거나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기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과 관련된 많은 투자 기회가 존재하며 민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에너지 효율 건물, 기후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건조 지역 농작물 생산 개선, 회복력 있는 수자원과 같은 기후 스마트 및 저탄소 기술에 의존하는 분야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의 ICT 시장은 2020년 954억 달러에서 2023년 1,04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트리, 기생 드론, 공기 정화 버스, 공기 분리 식물과 같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높다. 일반 농업과 기업식 농업의 잠재 투자 가치는 2030년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및 재생 에너지 기반 관개, 바이오컨트롤 제품과 정밀 애플리케이터, 기후 회복력을 갖춘 가축 사료, 해충 또는 잡초 제거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과 같은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러 혁신적인 정책과 조치가 이 모든 잠재적 가치를 견고한 투자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기후 및 녹색 성장 투자에 대한 규정, 표준, 정책 개발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발 노력에는 다자개발은행(MDB), 개발 금융 기관(DFI)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혼합금융 상품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기후 및 녹색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녹색 채권, 그린론과 같은 지속 가능한 금융 수단의 이용 확대가 민간 투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털의 관심 확대를 활용하며, 새로운 탄소 시장과 기후-채무 스와프 및 기후 관련 채무에 신중하게 관여함으로써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민간 기후 투자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기후 및 녹색 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MDB와 DFI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2018–20년 이들 기관이 조달한 민간 투자액 중 기후 행동과 관련된 금액은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MDB와 DFI는 개발 및 국제 공공 재정 확보 분야의 주역으로서, 자기자본비율을 신중하게 줄이고 맞춤형 자본 및 유동성 체계를 확립하며 기존 규제 자본 및 기타 관리 규정을 재평가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에서 시스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기후 회복력과 관련된 저탄소 중심 관점을 정책 입안 과정에 통합시킬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 관계가 있는 정부는 이들 기관이 혁신적인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 권고 사항

- *아프리카 국가는 국내 및 해외 이해관계자가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의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기 전략(LTS)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분야별 전략, 계획, 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들은 각각 폐쇄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경제 전체에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또한 거버넌스 및 회계 책임 시스템을 강화하여 민간 자금 수익이 녹색 성장에 대해 예상되는 최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격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표와 투명성 및 회계 책임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과 규제 개혁은 민간 분야가 채택과 완화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낸다.
-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혼합 금융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 배분 시 부가성과 비례 원칙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잠재적으로 특히 인프라 자금 조달 및 사회 개발과 환경 관리 프로젝트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혼합 대상 자금 배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MDB와 DFI는 부채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투자에 대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아프리카 국가에 추가적인 부채 부담을 주지 않고 녹색 성장 및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성 자금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통화 기반의 국내 자본 시장을 통해 채무 위험에 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채무 메커니즘 전개를 강화해야 한다.
- *이들 기관은 기후 투자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여정으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기후 및 투자 위험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방안을 개발하며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상호 보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평가 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의 실질적 잠재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 또는 신용 평가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는 국내 및 해외 이해관계자가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의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기 전략(LTS)을 개발해야 한다.

녹색 성장 시장의 실제 잠재적 가치를 포함시키기 위한 평가 절차의 재구성이 포함된다. 평가 기관 개혁과 아프리카 평가 기관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진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다.

- *MDB 및 DFI 이해 관계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선진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MDB에 임의 상환 가능 자본을 더 할당하고 MDB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DFI의 수익성 목표 또한 줄여야 한다.

아프리카는 전세계 광물 자원의 30%, 전세계 미개발 경작지의 65%, 목재와 탄소 보존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삼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열, 풍력, 수력 발전 역량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서 얻는 수익은 계속 그 잠재적 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장
아프리카의 기후 재정과 녹색 성장을 위한 자본

아프리카는 재생 및 재생 불가능 천연 자원이 모두 풍부하다. 전세계 광물 자원의 30%, 전세계 미개발 경작지의 65%, 목재와 탄소 보존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삼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열, 풍력, 수력 발전 용량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서 얻는 수익은 계속 그 잠재적 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계에서 아프리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량은 상당하지만 그 이용 현황을 생각해 볼 때 자원의 가치는 미미하거나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5년 동안의 추세를 볼 때 1인당 자연 자본의 가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부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기후 변화 과제와 기후 재정의 격차를 고려할 때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그 자연 자본을 활용하여 녹색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풍부한 천연 자원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천연 자원을 일종의 천연 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여기에는 공기, 토양, 물, 지질 및 모든 생물이 포함된다. 자연 자본은 국가 자원의 일부로, 인적, 사회적, 물리적 등 기타 형태의 자본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연 자본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통일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지구상 천연 자원의 수량과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어려움과 복잡성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환경 경제 통합 회계(SEEA), 생태계 회계(SEEA Ecosystem Accounting)와 같은 새로운 체계를 통해 자연 자본과 생태계 서비스를 국가 회계 표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그 파트너 조직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아프리카의 자연 자본은 2018년 기준 6조 2천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광물 및 기타 채굴 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 자본의 실제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 자본의 추정 가치는 측정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지 기반 격리 탄소 보존, 태양열, 풍력, 생물 다양성 형태의 생태계 서비스와 그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측정된 자연 자본은 재생 가능한 형태로, 주로 토지, 삼림, 경지, 초원, 보호 구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를 비롯한 기타 요인으로 인해 아프리카 주민 1인당 자연 자본은 1995년 4,374달러에서 2018년 2,877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인구의 상당수가 천연 자원에 생계를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기후 위험 등에 있어 불평등과 취약성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생 가능한 자연 자본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올바른 인적 자본과 산업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자산과 생태계를 통해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순환 경제 원칙(가능한 경우 물질 재활용과 회수) 적용으로 자연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육지 생태계에서 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바나듐 등 지구의 미래를 순제로 배출 환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

카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중요 금속 및 광물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순제로 배출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광물의 전체 글로벌 가치 중 약 10%만 아프리카가 담당하며 주로 생산지에 가치를 전혀 또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원자재만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수출과 아프리카 국가 간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천연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약 8억 5천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 가스(2018년 기준 2,100억 달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자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 이용률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채굴 자원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공공,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고 수입에 있어 이들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40년 아프리카 정부 수입에 대한 채굴 자원의 기여도는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8년 아프리카 재생 불가능 자연 자본의 추정 가치는 2조 4천억 달러였다. 그 중 광물과 화석 연료의 추정 가치는 각각 2,150억 달러와 1조 6백억 달러였다. 아프리카 국가가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자원 임대 배분과 함께 각국이 해당 자원에서 창출된 수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 정책의 경우 재생 불가능한 자원 활용과 관련된 환경 기회 비용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조정 로열티 세금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정부는 재생 불가능 자원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 도구를 배포해야 한다.

재생 가능 자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보충되는 만큼 채굴 속도가 재생산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연간 수산물 생산 규모는 1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7백만 톤은 해양 어업, 3백만 톤은 내수면 어업을 기반으로 한다. 열대, 아열대 지역의 해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맹그로브의 경우 탄소 격리, 홍수 방지, 생물 다양성 보존, 수목 및 비수목 등 경제 및 생태계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삼림 규모는 약 6억 37백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이는 아프리카 육지 면적의 23%에 해당한다. 또한 삼림 밖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은 육지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헥타르로 추정된다. 천연 자원은 야생 동물과 함께 생태 관광 산업에도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여행 산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양성 평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과 삼림을 보호하는 데는 정부 정책, 지역 사회 참여, 공공 교육 및 인식과 관련된 다면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다자간 협정은 아프리카 국가가 새로운 자원과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에서 온실 가스 순제로 방출 경제로의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은 자원 기반의 중대한 기회를 제시한다. 아프리카는 이미 전세계 다른 지역보다 순제로 방출 단계에 훨씬 더 근접해 있어, 예를 들어 삼림 내 탄소 격리 증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규제적 탄소 시장의 탄소 배출 감소 비용이 자발적 탄소 시장보다 높은 관계로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 크레딧 거래 기회가 존재한다. 규제적 탄소 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유럽연합(EU)-배출권 거래 제도와 아프리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차이는 1톤당 3.41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에는 1톤당 52달러로 증가했다. 각국이 자체 NDC를 구현하는 대신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연간 총 비용 감소 규모는 2030년 약 25백억 달러에서 2050년 1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수출과 아프리카 국가 간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천연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또한 지난 50년 동안 불법적인 자금 흐름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으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간 약 890억 달러의 손실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Adjustment Mechanism)에 따른 또 다른 기회도 존재한다. 이 제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제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_2)를 배출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아프리카는 탄소 격리 잠재력이 큰 만큼 이 메커니즘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녹화 계획은 탄소 거래에 따른 이러한 이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격리에 필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녹색 만리장성 이니셔티브(Great Green Wall Initiative)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COP 27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부작용(손실과 피해)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손실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조성한다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국제환경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환경 보호 기회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또한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자발적 탄소 시장 육성, 아프리카개발은행이 기후 변화 적응 조치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관리하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인 적응 수혜 메커니즘(Adaptation Benefit Mechanism) 또한 같은 맥락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국가는 제도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국제 협약에서 아프리카가 얻은 혜택이 미미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자원 보유량을 조사하고 지원 격차를 파악, 논의할 수 있는 역량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또한 자국의 천연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이점을 개인 투자자와 협상하지 못하며 그 부분적인 이유는 보유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 재정과 녹색 성장을 위해 자국 천연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천연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자원이 풍부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원을 임대한다. 그러나 임대물을 생성, 점유, 할당,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배층 엘리트 집단 간에 격렬한 경합이 발생한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채굴한 임대 자원을 잘못 관리하는 데 따른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한다. 아프리카는 지난 50년 동안 불법적인 자금 흐름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으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간 약 890억 달러의 손실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기업 자원 유출, 계획 범죄, 부패, 뇌물에서 비롯된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천연 자원에 대한 높은 세율, 제도적 역량 부족, 정치적 불안정, 낮은 규제의 질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녹색 성장 전환에 대한 자연 자본의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거버넌스 대안으로,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유관 부서의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 정책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자연 자본 및 국가 신용 등급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신용 등급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 자본은 정부 신뢰도와 신용도의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역량 구축에 투자하며 지역 통합 개선으로 국가 간 문제(예: 자연 기반 제품 밀수) 해결을 위한 협력과 거래를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지역 콘텐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권고 사항

- *세계 각국은 손실 피해 기금 조성 합의, 포스트-2020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적 합의에 서명하고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또한 자연 보호와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 관리를 통합하고 장려하기 위한 국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세계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자금 조성과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목표 금액 달성이 포함된다.
- *국제 및 지역 다자간 조직, 각국 정부, 민간 분야를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 간의 협업과 조정 증진으로 아프리카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투자한다.* 천연 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원주민, 인권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자원 채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서식지 파괴 위험이 높아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노력이 절실하다.

- *혁신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장기 정책 옵션을 개발한다.* 바이오 크레딧, 지속 가능 채권, 탄소 채권, 자원 담보 대출, 공인 적응 수혜(Certified Adaptation Benefits), 환경 스와프(debt-for-nature swaps), 자연 자본 기금을 고려한다. 그러나 환경 스와프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엄격한 개발 또는 환경 보호 이외에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정부간 분야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재생 가능 천연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재생 불가능 천연 자원의 책임감 있는 채굴과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 *자연에 민감한 투자에 있어 자연 자본의 환경, 사회 및 정부 측면을 책임감있게 주도할 수 있는 순환 경제를 촉진한다.* 재생 불가능 자원(예: 녹색 광물)과 재생 가능 자원(지속 가능한 어류 및 삼림 관리)의 물질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킨다. 자연 기반 솔루션과 전체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의미 있는 윈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아프리카 국가는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공공 정책 개혁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천연 자원 활용 및 자연 자본 투자와 관련된 환경 기회 비용의 내부화와 같은 복잡한 기타 관리 감독 문제 해결 노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국가 생물 다양성 행동 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자본 투자 계획 개발, 개발 계획 및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자연 자본의 주류 편입, 국가 회계 시스템에 천연 자원 회계 통합, 로열티, 초과 이익세 재협상 개선을 위한 특정 재정 기구 개발 등이 포함되며 그 목적은 아프리카 천연 자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수익 소유권 촉진을 위한 국영 기업 개혁,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신용 평가 기준에 자연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국제 신용 평가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관련 노력에 포함된다. 자연 자본을 평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자본 시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3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가 1차 상품의 50% 이상을 소비재로 가공하도록 독려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이들 권고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개발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원자재 수출만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 *삼림 생태계의 탄소 격리 가치와 연관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반으로 국가 GDP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더 확장하고 폭넓은 성장 의제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 전체 GDP에 대한, 또한 신용 평가 목적의 가치로서 탄소 격리의 이점은 위험 평가 기관과 아프리카 학계가 긍정적 외부 요인의 가격을 전세계의 공공재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과 빅 데이터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다.
- *폭넓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자연 자본의 역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자연 자본 계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회계 시스템의 일부로 적절한 거시적 경제 관리 및 지속 가능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동시에 천연 자원 임대의 일부에 대한 투자로 지리 및 지역 데이터를 생성하여 지역 탐사를 지원하고 필요한 환경 평가를 수행하며 투자자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배터리 가치 사슬에서 필요한 녹색 개발 광물에 있어 아프리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적인 접근, 협력, 역량 구축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방대한 광물 자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함으로써 공급망에서 탄소를 제거하고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적절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에는 지역 차원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기관이 필요하다.
- *다자간 개발 파트너는 자원 및 생태계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며 국제 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회계 도구 및 정책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할 수 있다.* 기후 적응, 완화 및 자연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

천연 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원주민, 인권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자원 채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서식지 파괴 위험이 높아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노력이 절실하다.

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MDB가 적응 수혜 매커니즘 (Adaptation Benefits Mechanism)에서와 같이 기후 위험 제거와 자연 관련 투자에 있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3.8%의 감소를 거쳐 2023년 4.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중국 재개방과 금리 조정 속도 둔화에 따라 세계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망은 세계 성장 둔화에 따른 아프리카 수출 부담, 지속적인 국제 금융 긴축 재정에 따른 채무 상환 비용 증가, 잦은 기상 이변에 따른 심각한 손실 및 피해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전세계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적인 붕괴와 같은 중대한 부정적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에 따라 다가올 총선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증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거시 경제 기본 상황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15.1%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재정 운영 실적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팬데믹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출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지만 다른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아프리카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장애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재정 규칙과 거시 건전성이 확보된 정책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익유동성을 확장시키고 균형 잡힌 채무 재구성 전략을 정의해야 하며 경제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올해 발행된 보고서, 아프리카의 기후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Mobilizing Private Sector Financing for Climate and Green Growth in Africa)은 아프리카의 기후 행동 및 녹색 성장에 대한 민간 투자를 빠르게 달성하고 아프리카의 자연 자본을 상호 보완적인 자금 조달원으로 신중하게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재정 요구에 대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이 새로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기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6%의 민간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134억 달러 수준이다. 기후 재정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요 공급 측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동시에 기후 및 녹색 성장과 관련된 아프리카의 방대한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만연한 기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녹색 성장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2018년 기준 6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 자본을 기후 적응 및 완화에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자산으로, 또한 녹색 성장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도구와 함께 아프리카 자연 자본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 콘텐츠 및 가치 추가를 강화하며, 아프리카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가치망과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Avenue Joseph Anoma
01 BP 1387 Abidjan 01 Côte d'Ivoire
www.afdb.org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